

큰 빛은 예교회 가정에배지

2024. 11. 06.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2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3절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4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 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후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대표 기도

-----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

기도자

성경 봉독

----- 에베소서 1장 7절 -----

다 같이

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된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죄와 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눌 때 가정과 개인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줍니다.

죄는 반드시 수치심을 동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 앞에서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봅니다. 뻔뻔스럽게 죄를 지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얼굴을 저렇게 가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죄에는 반드시 수치심이 따르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옷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자 벌거벗은 수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도 죄를 짓게 되면 마음속에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수치가 마음을 가려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죄와 부끄러움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도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둘째, 수치심을 가져다주는 죄 앞에서 인간은 무능력합니다.

죄로 인해 수치심에 가득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8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앞치마를 해 입어도 햇빛이 비치면 말라서 금세 쭈글쭈글해지고 다 부서져 버립니다. 다시 새 옷을 해 입어도 어느새 부서지고, 또 해 입어도 부서집니다. 이처럼 죄를 없애는 것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가릴 수 없고 마음의 수치를 없앨 수 없습니다. 죄는 마치 우리 피부색과 같아서 아무리 닦아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됩니다.

이사야 64장 5절~6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 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마무리 기도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 살게 하시고, 그 능력있는 삶을 이웃에게
전하여 함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 되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